

지난 봄 가수 나훈아씨가 괴소문을 참다못해 기자회견을 자청한 일이 있었다. 인기여배우와 의 염문설, 야쿠자로부터의 폭행설 등 갖가지 루머에 시달리던 나씨는 '보여주면 믿겠느냐'며 바지까지 벗으려고 한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회견에서 나훈아씨는 '대한민국은 아니 뎨 굴뚝에서도 연기를 내는 나라'라고 질타했다. 언론의 자유를 방해해 헛소문을 양산하는 악플러들에게 주는 경고였다.



불자 세상보기

홍 사 성
불교평론 편집위원

최근에는 인기 탤런트 최진실씨가 괴소문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했다. 사재장사라는 헛소문을 유포시켜 만인의 사랑을 받던 한 재능 있는 연기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은 비열한 살인자들은 무슨 악화 심정인지 최씨가 죽은 다음에도 악플을 달았다. 망자에게까지 비아냥거리는 악플을 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이다. 오죽했으면 그녀가 자살을 결심했겠는가.

두 사람의 경우만이 아니다. 신문이나 방송에는 유명인사들이 근거 없는 헛소문에 시달리다 못해 고소를 했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다. 그럼에도 일부 지각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퀴벌레처럼 어둠 속에 숨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장난삼아 던진 돌맹이로 개구리를 죽음의 언덕으로 내모는 것이다. 장난이든 의도적이든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섭섭하다'고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또한 옳은 일은 아니다. 어떤 고통도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어둠은 해가 뜨면 사라지게 되듯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지 못한 최씨의 인내심이 아쉬기만 하다.

남이 나를 모함할 때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좋은 모범을 보여준 분이 부처님이다. 부처님도 한때는 괴소문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 그것은 전도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부처님의 명성이 퍼져나가자 이를 시기한 외도들은 손타리라는

쳐녀로 하여금 정사를 출입하게 한 뒤 임신했다는 소문을 냈다. 부처님은 억울했지만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다. 얼마 뒤 그녀는 배에 찔던 바가지가 깨지면서 거짓이 들뜬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부처님은 더욱 거룩한 분으로 추앙받았고 모함자들은 쥐구멍으로 숨어야 했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슴에 두 개의 '살(殺)'자를 품고 괴로워한다고 한다. 하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살(殺)사육망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

살(殺)의 유혹이다.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최악의 선택일 뿐이다. 최선은 첫째도 인욕, 둘째도 인욕이다.

물론 억울한 일을 참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가르침에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 잡야할 42권 <빈기가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는 경전이다.

어느 날 외출을 나간 부처님이 뜻밖의 병변을 당한 적이 있었다. 친족 가운데 한사람이 출가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외도가 부처님에게 화를 이룰 한 것이다. 부처님은 듣기 거북한 모욕적 언사를 한참동안 참고 듣다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여, 그대가 집에 찾았은 손님에게 좋은 음식을 내놓았다고 하자. 그런데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는가?"

"그야 물론 내 차지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요?"

"오늘 그대는 나에게 욕설로 차려진 진수성찬을 대접하려 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 모욕적 언사들은 모두 내가 가져가야 할 것 같구나."

이 이야기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에게 주는 두 가지 가르침이 들어있다. 하나는 남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과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럴 생각하면 조금은 위로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모함이나 모욕을 받게 되면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다. 아리석은 마음으로 극단적인 대처를 하면 자신만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社說

역경원의 고민 전불자의 것

최근 동국역경원이 아주 뜻 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전국 대강백들을 초청해 동국역경원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경로를 탐색하는 자리였다. '역경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연 이 모임에서는 동국역경원이 처한 현실이 냉철하게 진단됐고 역경원의 미래를 위해 매우 발전적인 제안도 쏟아졌다. 이날 모임에서 나온 의견들만 잘 정리되고 그 각각의 사안들에 대한 방안이 현실화 된다면 한국불교는 머지않아 세계의 불교화와 실참수행을 이끄는 위대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의견이 의견에 머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대강백들이 경학의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대안이라면 그대로 정답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 정답을 검토하고 현실화할 기구가 부족하다. 크게 부각되고 있는 역경원의 양성 과 기존 번역본의 재가공 그리고 전산화 작업 등을 추진할 경제적 여건 마련은 동국역경원만의 힘으로 어려운 일이다.

조계종의 3대 사암이 역경 포교 도제양성이지만, 역경에 대한 종단적 관심은 언제나 미약했다. 매년 종단 예산에서 지원금을 배정하고 있지만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족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역경사 배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것이 앞날을 염려하게 하는 대목이다. 동국역경원이 마련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개진된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종책에 반영돼야 한다. 오늘날 동국역경원의 고민은 불자대중 전체의 고민이다.

창간 14주년의 감사와 다짐

창간 14주년,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기치로 내걸고 의욕적으로 출발한 본지가 또 한 번의 생일(10월 15일)을 맞았다. 어려운 가계에도 불구하고 매주 본지를 기다려주고 정성껏 읽어 주신 독자제현께 전직원은 앞드려 감사사를 드린다.

오늘날처럼 첨단통신 수단이 발달한 시대에 활자를 근간으로 하는 신문매체는 여러 측면에서 '고전' 중이다. 그러나 경전의 역사가 장엄하듯 전법의 사명을 나눠 갖고자 다짐한 신문의 역사가 빛나는 가치를 지닌다고 자부한다. 본지는 매주 발간하는 신문이 경전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한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불교의 14년은 불민환과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을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깨침의 메아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매체로 성숙해 나갈 것을 앞드려 약속드린다.

본지에 대한 독자제현의 사랑은 황송하게도 크고 넓다. 오탈자를 발견하면 불같이 질책하는 독자도 있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 제보해주는 독자도 많다. 정법과 거리가 먼 광고를 게재한다고 질책하는 독자도 있고 "불교계의 힘긋은 일을 보도해 다수의 신심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요청하는 독자도 있다. 이 같은 독려와 질책이 본지를 길러주는 영양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더 모진 질책을 감내하고자 한다. 지난 14년간 본지를 믿어주고 지원해 준 광고주 제위에 대한 감사는 고함쳐도 모자라다. 제작자의 입장보다는 독자의 입장에서 늘 깨어 있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마음 놓치면 재물이 오히려 독"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85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자다 뭐다 하고 다녔다. 어울리는 친구들도 달라졌다. 돈을 잘 쓰니 주위에 다른 여성들이 다가오게 됐다. 가정을 점점 소홀히 하고 놀러 다녔다. "얼마나 신이 나던지, 부자가 된다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서 방탕하게 살았지요." 결국 일 년 만에 부인과는 이혼하고 말았다. 그렇게 사십 중반까지 십년간을 정신없이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에 적신호가 왔다. 결국 병원에 갔고, 술을 끊지 않으면 치명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내가 큰일 날 수 있다고, 이거 정신 차려야겠구나" 하면서 식은땀이 흘렀다. 천천히 병원문을 나오는데 누가 불렀다. "이게 누구야?" 예전 고향친구였다. 그리고 보니 지난 십년동안 이 좋은 친구들을 멀리하며 살았었다. "반갑다. 어떤 일이야?" 근처 커피집으로 갔다. 친구는 마주 앉더니 "야, 너 부자됐다면, 그런데 나이가 들었

구나"하며 머뭇거렸다. 조씨는 뜨끔했다. '우리 둘 다 45세인데 저 녀석은 왜 저렇게 젊어 보이는 거야. 사실도 안 되어 보이네. 그런데 사실 요즘의 나는 오십도 넘어 보인다. 동갑인데 친구가 나보다 십년은 젊어 보이다니.' 중학교 교사로 성실하게 살아온 친구였다. 그 친구를 보고 있자니 지난 날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있었다. "그래, 나도 저랬는데, 마음이 진실하고 땀 흘려 일하려 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에 비하면 지금 난 눈빛도 탁하고 살도 쯤고 아이고." 한숨이 나왔다. "난 명품 옷을 입고 있지만 소용이 없구나. 도무지 얼굴에서 나오는 기운이 저 친구에게 비할 수 없이 탁하구나. 이러니 늙어보일 수밖에." 조씨는 충격을 받았다.

내 마음이 주인

그날 밤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들어가자 전에는 느끼지 않던 외로움이 몰려왔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다. 낮에 만난 친구가 떠올랐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나누던 대화도 떠올랐다. '십년간 돈으로 몸은 호강했지만 내 마음은 어떻게 된 건가.' 아니 몸까지 망가져 지진 술도 마실 수 없게 되어버렸다. 조씨는 가슴을 쳤다. 십년 간 마음이 뿔뿔러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사는 게 지겨워졌다.

그 날 이후 삼년이 흘렀다. 건강 때문에 명상을 시작하다가 절에 인연이 되어 다니고 있다. "돈 없을 땐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을 놓쳤더니 돈이 오히려 독이 되더라고요." 조씨는 정색을 하고 말한다. "정말 양심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 바람은 생기기 전의 제 마음이 훨씬 행복했어요. 이거 변명이 아니에요. 혹 마음보다 돈을 중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증거라도 되고 싶어요." 조씨는 이제 마음공부를 하며 서서히 본래의 마음을 회복 중이다.

그는 미소 지으며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는 마음은 스스로 내는 거지 절대 살 수가 없다고요." 돈은 중요하단다. 그러나 과연 누가 주인인가. 내 마음인가 돈인가.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어긋나는 것이다. 마음 속 부처님을 주인으로 하여 돈만 아니라 일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정진해야겠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돈 있으면 행복할거야

"정말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간 망해요." 조씨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시골에서 태어난 조씨는 가난하게 살아왔다. 대학학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공부도 편하게 했지만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졸업 후 다니게 된 직장은 월급이 별로 터지지 않았다. 그래도 조씨는 항상 성실하고 작은 것에 감사했다. 주위의 어른들도 "자네는 항상 눈이 반짝여서 좋아. 마음이 진실하니 잘 될 거야"라고 했다. 열심히 살며 30대 초반에는 결혼도 했다. 어려운 살림이지만 돈이 오순도순 저축하며 사는 재미가 있었다. 조씨의 고향친구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살고 있었다. 가끔 만나서 서로를 격려하곤 했다.

그런데 35세가 된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시골에 대대로 있던 조씨 조상집과 근처의 땅이 개발이 된 것이다. 무슨 도시 계획에 연결돼 하루아침에 엄청난 가격에 팔리게 됐다. "꿈이나 생시나, 우리 팔자에 이게 웬일이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다. 외아들인 조씨에게는 이십억이 넘는 돈이 주어지게 됐다. "얼마나 좋았는지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돈이 있으니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하고 결심했지요."

행복은 어디 갔나

그 때부터 조씨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지게 되었다. 우선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증권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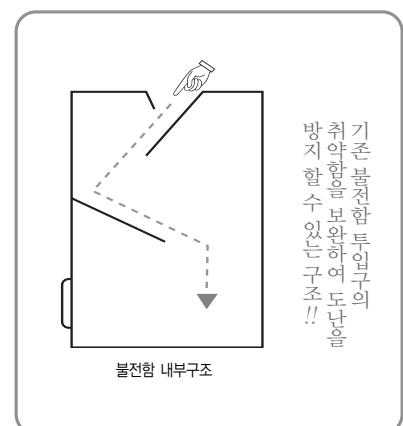
전통과 실력의 우수업체



범양금고 불전함

[불전함 야외용 주문 제작 가능]
특히신중중, 주문제작, 전국 택배 가능 (최대 3일 이내)

기존의 목재 불전함과 크기 및 외관이 흡사하여 금고를 사용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 하였으며 통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투입구의 취약함을 차단하여 더욱 안전하며, 바퀴부착으로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합니다. 수시로 훼손되는 목재형 불전함과는 안정성 및 비유면에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범양금고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http://bumyang.net>

미안산 탐사, 부산 금정시외 교통사, 보령사, 법성사, 해령정사 등에서 이미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BY630 사무가형용 [중량 100KG] 외부 630×500×500 내부 410×360×335
BY670 사무용 [중량 120KG] 외부 670×500×500 내부 450×360×320
BY750 사무용 [중량 140KG] 외부 750×520×500 내부 550×410×340
BY860 사무용 [중량 160KG] 외부 860×580×510 내부 660×460×340

범양금고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172-5
전화 02)2277-1540 / 031)764-6234, 6233
팩스 031)764-6462 / 011-414-2304

[계좌번호] 농협 221103-52-056910 (강순집)
기업 485-005940-01-017 (강순집)



▶70만원

◆크기 : 높이700×넓이700×깊이350 / 투입구 : 가로350×세로350



▶40만원

◆크기 : 높이620×넓이350×깊이350 / 투입구 : 가로190×세로95